

로버트 드니로, 벤 스틸러



렉은 돌아와서는 번즈네 정원을 오수 천지로 만들고, 화재를 일으키고, 정스를 잃어버린다. 다급해진 그는 책의 반감을 만회하기 위해 몰래 다른 고양이를 사 오지만 정스가 이웃집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모두 수포로 돌아간다. 혼자 시카고로 돌아가던 그는 딸로부터 편협하다는 비난을 받고 그를 찾으러 온 책의 축복을 받는다.

해럴드 래미스의 신동참은 마피아 영화 <애널리스트 디스>에서 인상 깊고 강도질하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로버트 드니로의 주기적 코미디 바람은 열성적인 팬들에게조차 경기를 일으켰었다(그중 <천사탈주>는 특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그러나 그림 같은 저택의 창문으로 가소롭다는 듯 밖을 내다 보는 WASP의 화신으로 처음 등장한, 사람의 피를 말리는 이 책 번즈 역은 그가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연기였다. 바로 온몸에서 발산되는 불길한 에고이즘이다. 사사건건 뼈뚫고 신랄한 대사에도 불구하고(“그러니까 정서적으로 깊이가 없는 동물만 좋아한다는 건가?”라는 대사는, 벤 스틸러가 분한 예비 사위가 개를 좋아하는 이유를 대자 그가 맨 처음 던진 말이었다), <미트 페어런츠>에서 드니로의 진수는 그 대사들 사이의 침묵에 있다.

묵직한 함구와 거기서 방출되는 은근한 긴장감은 지금껏 슬랩스틱 표정 만들기에 열중하면서 간과해온 드니로의 진정한 코믹 연기다. 이런 예상 밖의 호연을 맞은 운 나쁜 구혼자 그렉 퍼커 역의 벤 스틸러는 뒷전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다. 아까운 것은 망신과 원초적 분노의 진면목을 보여준 스틸러의 연기 역시 압권이라는 것이다. 주연을 맡고도 사이드쇼가 되어 버린 그를 지켜보는 것은 확실히 이상한 일이지만, 이는 한 쪽의 줄연이 아니라 상대의 호연에 의한 것이었다. 드니로의 약질적 매력은 이렇게 강력하다 보니 빈약한 내러티브는 거의 용서하게 된다. 문제는 지엽적이기보다 근본적이다. 반짝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영화가 흔히 그렇듯 '알지만 끝까지 몰입하게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스티러에게 닥치는 시련, 유치하다 못해 신나기까지 한 그 사건들(고양이 쫓 쫓기가 영화에서 이 이상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을 것)도 처음 한 시간 동안은 흥미진진하지만 이야

기가 뻥하게 진행되면서 곧 시들해진다. 그렇다고 작품을 관통하는 냉소적 지성과 솔직성(성급하고 감상적인 결말의 순간까지 시카핀 정서의 범람을 최대한 막은)을 무시한다면 인색한 일일 것이다. 스틸러의 그렉 퍼커와 드니로의 책 번즈가 반목하는 진짜 이유는 짐작하기 그리 어렵지 않다. 책이 그렉을 내치는 표면적 이유는 물론 그렉이 사고동치여서지만, 실은 근본도 없는 도시 지역 유대인이 다복하고 전통 있는 노먼 록웰적 가정을 침범하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다. 처음엔 짓궂기만 하던 책이 터무니없는 비난을 던지며 격노하기 시작하면(가정을 침범하는 낯선 요소의 상징처럼 '퍼커'란 이름을 되풀이해 내뱉으며), 영화는 단지 잘 만든 메인스트림 코미디가 아니라 미국을 쪼먹는 분열의 골에 대한 통렬한 코멘트가 된다.

Danny Leigh
© SIGHT & SOUND



제작 논 엔터테인먼트	다이얼로그 에디터 이준우 최은아
제작/기획 최낙권	사운드 유틸리티 홍윤성
제공 KTB 네트워크	작곡 박호준
제작투자 하성근 노재승	편곡 박호준 김현보 신명수
조감독 김영민	음악감독 이수연 구운경
각본 고은남	네거티브 이수연 남나영
촬영 이우곤	색보정 이용기
조형 원명준	네거티브 임진오
편집 박유경	특수현상 최정영
음악 박호준	프린트 김학성
미술 장춘섭 정영순 박재형 정현철	현상소 윌리우드
미술팀 지원 박진연 이운경	유틸리티 쿠알라포르덕션
세트 윤기찬	텔레시네 제일현상소
소품 장석훈 장석호 김민수	홍보/마케팅 아트 로드
의상 박현준 김문영 이은진 정혜성	인터넷 마케팅 헬로우닷컴TV
분장 장윤정 홍기원	로케이션 프로듀서 홍석범
헤어 권경일(비비로스)	로케이션 매니저 백성민
기록 이미희	프로덕션 매니저 윤지훈
특수장비 권성태(거인무비텔) 김민	라이팅 제리 로엘렌츠
구 운진석	제작부 전승주 이재민
카메라 신영필름	제작부 지원 신영일 최윤정황근하 김
특수카메라 김병일	원욱 김정환
스테디캠 김석진	제작부장 유재형
지미 집 신진우 박일수	제작실장 김운오
연출부 김동욱 이지원	출연
촬영부 김병승 윤남주 정석원 노승보	이병현 서인우
김대성	이은주 인태희
조형부 이동규 이병훈 윤효정 김바다	여원수 임현진
강광구 박남민	홍수현 어혜주
스틸 김종기	최민선 인우 처
포스터 촬영 윤형문	김익수 조소과 교수
사운드 슈퍼바이저 김석원	이범수 이대근
동시녹음 이태규	오지혜 임시 국어교사
녹음부 박현조 윤성기 김현상	김정학 차기석
메이킹 필름 방장호(픽셀)	이지용 권윤정
스토리보드 차주환	장석원 조재일
컴퓨터 그래픽 강종익 손승현 김용수	김준호 신영호
조원희	남궁민 김성철
아비드 어시스트 김미영 박경숙	방진의 김현경
폴리 아티스트 박준우 김학준	김 원 민욱기
폴리 에디터 김태하	김민재 김민재
사운드 이펙트 김창섭	

100분 한국 2001년 제작

1983년, 소나기가 쏟아지던 어느 여름날, 인우의 우산 속으로 한 여자가 뛰어든다. 첫눈에 반한 인우는 버스정류장까지 동행하면서 말도 제대로 붙여보지 못한다. 이후, 그는 매일 버스정류장에서 그녀를 기다린다. 이쯤도, 학교도 모르지만 쉽게 잊을 수 없어하던 인우는 우연히 대학 교정에서 그녀와 다시 만나게 되고, 바야흐로 열렬한 구애가 시작된다. 전공은 나 몰라라 한 채 허구한 날 조소과 수업이다. MT다 졸졸 쫓아다니는 인우에게 태희 역시 마음을 연다. 그러나 인우가 임영철차를 타는 기차역에 태희는 끝끝내 나타나지 않는다.

2000년, 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인우는 학생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선생님이다. 그런데 언제부터가 담당학급의 학생인 현빈이 자꾸만 태희의 태도와 습성을 보이자 인우는 혼란스러워한다. 현빈을 대하는 인우의 태도가 예사롭지 않게 되면서 학교에는 두 사람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다. 급기야 담임인 반의 학생들까지 인우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주변의 압력으로 학교를 그만두고 아내와도 헤어져 집에